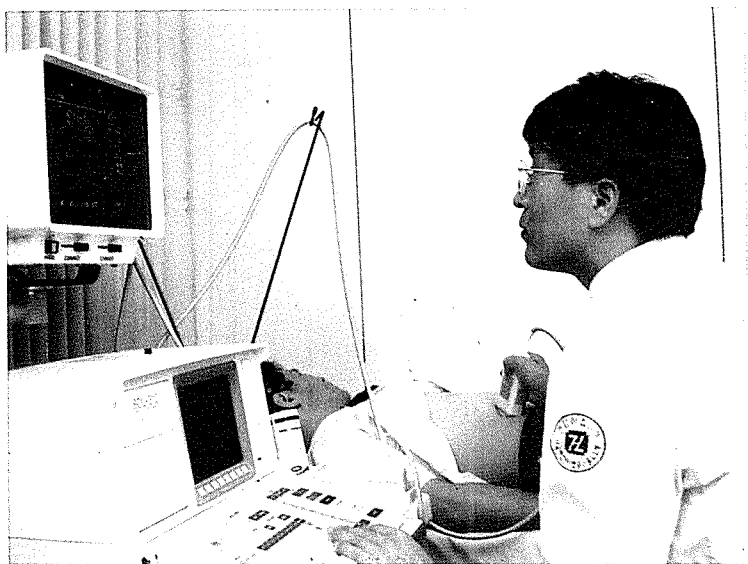


건강을 지키는 현장

건강관리 /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야
평생건강이 보장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청남도지부의 가족단위 건강관리 등록제



평생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개인의 건강관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단위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족의 유전적 소인, 생활 환경 요인 등이 질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청남도지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가족단위 건강관리 등록제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지부 부속의원 내원자 중 종합검사를 받은 부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본 제도는, 앞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평생건강관리에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어, 이번 호에 소개해 본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유전, 생활습관 등 가족적 소인, 건강관리의 중요 인자

『성인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적 소인이나 식생활, 운동 등 생활습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들어 어린이에게도 성인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만 봐도, 개인을 최소단위로 하는 가족단위의 건강관리가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가족단위 건강관리 등록제를 실시하기를 한겁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의 가족단위 건강관리 등록제 실시의 주역인 부속의원 강군옥 원장은, 등록제 실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건협 대전·충남지부의 가족단위 건강관리 등록제는, 앞으로 가족 전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 가정의학이나 평생 건강관리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원자중 부부 중심으로 가족등록 받아

이 등록제는 대전·충남지부 부속의원을 찾은 내원자 중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사항을 파악하여 기초기록부를 작성하고 임상검사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부는 1차로 '89년 10월 1일부터 '91년 9월 30일까지 종합검사를 받은 부부의 가족 등록을 받고, 총 160세대에 대한 기초기록부를 작성하여 등록관리에 들어갔다.

• 암·뇌졸중 등, 주요 사망 원인

1차 등록관리 대상자의 기초 기록부를 토대로 가족 건강관리실태를 분석·파악해 본 강원장은 『친척이나 가족 중 만성질환자가 1명이상 있는 가정이 전체의 85%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가족중 만성질환자가 2명 있는 가정에서 가장 높았습니다.』라고 결과를 설명한다.

또, 이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양측 부모의 질환이나 사망원인은 각종 암이 38%로 가장 많았고 뇌졸중의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암, 고혈압, 뇌졸중 등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해 주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강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올바른 생활습관과 정기건강검사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

한편, 진협 대전·충남지부에 가족단위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검사를 마친 후에 지속적으로 건강상담과 생활지도를 받게 되며, 특히 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강원장과 대전·충남지부의 설명이다.

“올바른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건강검사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평생건강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군옥원장은 말한다.



• 평생 건강관리 체계 이룩해야 한다.

한편 강원장은, 『가족등록 가정에 대한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서,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부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더 자리가 잡히면 가족 전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같은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이룩하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74